

충돌 증후군 환자에서 강직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Comparison of outcome in impingement syndrome with and without stiff shoulder

박진영, 유문집
단국의대 정형외과학교실

목 적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경도의 견관절 강직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 강직은 전방 거상과 내회전에서 흔히 발견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충돌 증후군은 충돌 검사에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다. 저자들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충돌 증후군의 환자에서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고 강직 여부에 따른 치료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경도의 강직이나 강직을 동반하지 않은 충돌 증후군 환자군 (impingement syndrome without stiffness; ISWOS) 78명과 고도의 강직을 동반한 충돌 증후군 환자군 (impingement syndrome with stiffness; ISWS) 23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ISWOS 51세, ISWS 53세이었다. 당뇨병력은 각각 15%와 17% 이었고 공복시 혈당량은 217 mg/dl와 212 mg/dl 이었다. 각군의 증상 이완 기간은 30개월과 18개월이었다. 술전에 시행한 충돌 검사상 주관적 통증의 완화는 66%와 69% 이었다. 수술은 강직이 없는 충돌은 견봉하 감압술 및 점액낭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강직이 있는 경우는 수동적 조작술을 추가하였다. 기능 평가는 미국 견주관절학회의 기능 평가 (functional score of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ASES score)를 이용하였다.

결 과

술 전 VAS를 이용한 통증 정도는 ISWOS 7.1, ISWS 8.0 이었으며 ($p=0.08$), ASES score는 34.1과 23.9이었다 ($p<.05$). 관절운동 범위는 ISWS에서 전방거상과 외회전, 내회전에서 감소된 소견을 보여 주었다. 술후 통증은 1.1과 1.0 이었고, ASES score는 90.4와 90.6으로 양군의 차이가 없었다. 술 후 관절 운동 범위는 전방 거상에서 감소된 소견을 보여 주었다.

결 론

강직을 동반한 충돌 증후군 환자에서 견봉하 감압술과 수동적 조작술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술 후 관절운동은 감소될 수 있으나 환자의 기능과 만족도는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